

##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1주차에는 기존의 SLC 건물에서 수업 및 생활을 하였으나 2주차부터 공사 관계로 Subic holiday villas 라는 리조트 로 옮기게 되어 생활 하였다. 수 영장이 전의 건물보다 크고 방도 더 쾌적하였고 관리 또한 잘 되고 있는 듯 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1주차에 사용하던 기존의 건물은 학업에 필 요한 분위기를 갖추었다고 한다면 2주차부터 사용한 Subic holiday villas는 아무래도 down town 과 인접해 있어 수업 후 나가지가 용이해 약간 여행 분위기가 더 많이 났다고 느꼈다. 2곳의 숙소 모두 지내면서 수도 문제나 벌레 문제를 빼고는 괜찮았다고 느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수업의 진행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수업의 진행 방식은 선생님들마다 다 달랐다. 수업에만 focus를 맞추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등 방식은 다 달랐고 과제 또한 그렇게 많지 않 았다. 나는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 그 전날 예습을 했는데 많은 효 과를 본 듯 했다. 수업은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으로 나뉘어 진다. 1대1 수업은 문법, 생활 영어, 읽기 등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고 그 룹 수업은 ToEIC speaking과 face to face, 뮤직비디오나 광고 동영상을 만 드는 MMC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1대1 수업을 통해 영 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레벨 테스트를 마치고 수빅 투어를 진행하는데 그때 현지 유심과 환전 등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진행하니 환전해가는 달러나 가방을 준비해가 는게 좋다. 매주 화요일 15:00 ~ 17:00까지 액티비티 를 진행하는데 내</p>

	<p>가 있을땐 서로에 대해 알아보기와 간단한 게임 올해 목표 등으로 진행되었고 매주 토요일에 필드 트립 을 진행하는데 1주차에는 리조트 에 가서 수영을 하니 수영복을 챙겨 가는 게 좋다. 2주차는 산에 가는데 간단한 그룹 미션을 진행한다. 3주차 에는 요트 체험을 가는데 날씨가 좋아야 배가 떠서 걱정 했지만 다행히 날씨가 좋아 요트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햇살이 강하니 선크림은 항상 필수로 챙겨 가는 게 좋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내가 갔을 땐 필리핀이 우기라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 그런데 빗줄기가 생각보다 얇아 현지인들은 그냥 비를 맞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이 끈적거리서 찝찝한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비도 잠깐 왔다 그치니 비가 오면 잠시 실내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갈 길 가면 된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현지의 안전 상황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실내에 들어갈 때 항상 가방 검사를 하고 소매치기나 위협적인 요소들도 없었던 것 같다. 하루는 혼자 다녀 봤는데 한국에서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나는 시설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이 있는 경우는 점호가 10시에 시작되니 그전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하고 수업이 없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12시까지니 그때 마음껏 놀면 된다. 지킬 것만 잘 지키면 시설에서도 별다른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처음 갈 때 지키라는 것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p>
식사	<p>학교식당 ( <input checked="" type="radio"/> ) 외부식당 ( <input type="radio"/> ) 기타 ( <input type="radio"/>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밥을 해주시는 분이 솔직히 학교 학식보다 맛있게 해주셔서 항상 만족하면서 밥을 먹었던 것 같고 가끔씩 저녁에 나가서 외식을 즐겼다.</p>
교통	<p> 시내교통 관련 필리핀 택시는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가는 장소마다 일정하게 돈을 지불하면 된다. 웬만하면 여럿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게 금액적으로도 안전하면서도 괜찮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1,333,530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	685,000	대학에 지불
보험료	28,530	현지 보험료
생활비	620,000	생활비 사용
합계	1,333,53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사실 별다른 준비할 것은 사실 없고 멀티탭은 가능하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 3주차쯤 되면 한명 두명씩 물갈이를 시작한다. 상비약은 센터에 있으니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된다. 가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으니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가던 곳만 가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 정도 되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현지의 atm기도 비자나 마스터 카드가 있으면 출금이 된다. 단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 여럿이서 한번에 인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나는 가르쳐준 선생님들과 같이 몇번 나갔는데 이게 또 영어 실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일상에 대해 밥 먹으면서 편하게 이야기 하니 더 가까워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나가려면 전날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나는 사실 필리핀에 가게 된 이유가 글로벌 경영대에서 진행하는 진행되는 스터디 어브

로드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함과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신청하였는데 다녀온 이들 모두 후기가 좋고 무조건 가라고 하고 해서 반신반의 한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좋은 인연도 많이 만들고 영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누군가가 이 프로그램을 간다고 물어본다면 나는 자신 있게 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첫 수빅투어 수빅베이에서</p>	<p>2주차에 옮긴 subic holiday villas</p>



1주차 activity white coral resort



2주차 activity mountain samad



3주차 activity yacht tour



SLC teacher들과 저녁식사 후